

##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권 순 희\*

### I. 서론

#### 1.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용어 문제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이라는 용어와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의 구별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 나라 사람<sup>1)</sup>에게 우리말을 가르칠 경우에는 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외국인에게 외국어라는 자격으로 우리말을 가르칠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본고에서 한국어,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급진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기 대회 등으로 한국에 대한

---

\*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1) 우리나라 사람이라 함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인이나 단기간의 국외 거주인, 국외 여행자, 국외 유학생 등을 의미한다. 교포나 교포 2세에게 우리말을 가르칠 경우에는 국적에 따라 모국어 교육, 자국어 교육, 민족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주지의 언어를 제 1차적으로 습득하고 사용하며 제 2차적으로 교육기관이나 모국 유학 등을 통하여 한국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국어 교육, 자국어 교육, 민족어 교육에서도 문화의 이해를 동반한 언어 교육을 이야기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필요에 따라 고려 대상으로 삼겠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학, 동양학을 전공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김영기(1991)는 한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가 정식으로 미국 대학이 교과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몇몇 대학을 빼고는 극히 근래의 일로, 대부분 1980년대에 생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백봉자(1991)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구미 지역의 일부 외국인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일본 지역에서도 한국어의 학습이 유행처럼 되었고, 이제는 이념의 장벽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중국과 소련에서까지 꼭 배워야 하는 언어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학습 자료 및 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단계별로 구성된 교재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각기 다른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가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닌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 편성의 고려 사항과 교재 편성의 사례를 제시하는 본 연구 작업은 의의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은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언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암시해 준다.

## I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의 이해

### 1. 언어와 문화

한 집단이 갖는 넓은 의미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언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외국어에 대

한 이해도 커질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문화의 이해가 반드시 교육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려면 언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이며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등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다”(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1994)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흔히 언어는 그 문화의 일부라고 말한다.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의 견해를 비교 고찰해 보겠다.

### 1. 1. 언어 결정론 - 사피어 워프 가정(Sapir - Whorf Hypothesis)<sup>2)</sup>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와의 관계나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인간이 감지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양식을 규정짓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사피어는 피력한 바 있다. 이 말은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단순한 중립적인 매개체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시켜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언어가 인간이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구체화시킨다는 가설은 사피어의 제자 워프에 의해 정립되면서 워프 가정 혹은 사피어 워프 가정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사피어 워프 가정을 열렬히 찬성하여 언어 결정론을 만든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사색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양식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언어 바로 그 자체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언어 구조와 한 국민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든 언어가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만 사고력을 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우

2) 박명석(1980), 언어와 문화, 외국어교육 논문집, 참조.

주관, 세계관을 정립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이 언어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세분화된 시제가 있는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시간 개념이 더 발달되어 있고, 인간 관계를 항상 어떤 서열 속에서 생각하는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존대법이 발달한 언어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언어 결정론에 입각한 설명이다.

예를 들면, 영어의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 등이 있고, 여기에 동작의 완료, 진행에 따라 동사의 시제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어는 동사의 시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본 시제는 과거와 비과거라고 할 수 있다. “어디 갔었니?”라고 하면 과거를 지칭하며 “어디 가니?”하면 비과거를 지칭한다. “지금 어디 가니?”라고 하면 현재의 일을 물어보는 것이고 “내일 어디 가니?”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가리킨다. 시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시제가 세분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는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친한 정도에 따라 말하는 태도나 존대법이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인도 유럽어족보다는 세분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상하의식이나 서열의식을 생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 있어서 신분적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존대법의 발달은 사물을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인식하지 않고 특수한 인간 관계에서 보려는 경향을 발달시켜 왔다. 평등한 입장에서 너와 나를 대립시켜 ‘나’라는 자아를 분명히 내세우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비하시킴으로써 자아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가 사고와 언어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인 언어결정론은 언어와 사고를 지배한다고 보는 사피어, 워프의 견해에 바탕을 둔 견해라 할 수 있다.

## 1. 2. 언어 무관론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나 의식 속에 한국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한국어가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나 의식 구조를 완전히 지배한다고는 할 수 없다. 만일 언어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결정론에 대가 되는 이론을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는 변형생성문법 의미론자들이다. 변형생성문법의 의미론자들의 입장은, 각 언어가 현실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표출시키는 엄청난 차이도 결국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일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언어의 심층구조로 내려가면 각 언어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즉 각 언어 사이에 깔려 있는 엄청나게 다른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그가 갖는 언어 구사에 대한 두뇌 조직이 거의 같기 때문에 언어와 언어 사이에 의미론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점과 모든 언어는 심층구조에서 그 언어 조직이 같기 때문에 각 문화권마다 언어 표현 양식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언어의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언어의 보편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 1. 3. 언어가 갖는 상대성

우리는 언어로써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와 사고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변형생성문법론자들의 주장보다는 언어 결정론 쪽으로 기울어지나,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속박한다는 결정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사고에 자주성을 준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언어라는 특별한 도구에 의해 설사 제약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언어는 어디까지나 감옥이 아닌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바람직하다.

사회의 가치기준, 사회의 변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대가족 제도, 봉건제도 하에서의 다양한 호칭이 요즘 접차로 잊혀져가고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용어의 사용을 꺼리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2. 문화적 차이에 의한 표현의 차이

문화적 차이에 의한 표현상의 차이를 대표할 만한 요소로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제시한 예들은 대표적인 일례이고 전부는 아님을 밝혀둔다.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상의 차이를 어휘를 중심으로 몇몇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국 어	영 어	비 고
모, 며, 쌀, 밥	rice	영어에서는 rice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세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문화에 따라 주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부, 이모부 등(숙부, 백부, 외숙부 등 격식을 갖추어 쓸 때 쓰는 어휘도 있다.)	uncle	대인관계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친족을 나타내는 어휘의 세분화 정도가 다르다.
형, 아우	brother	영어에서는 elder brother, younger brother 등 수식어를 붙여 순위 여부를 구분하고 한국어에서는 어휘가 따로 존재한다.
목	neck, throat	한국어에서 '목이 아프다'라는 표현에는 감기가 걸려 인후가 아프다는 것인지, 외상 등으로 밖에서 보는 목이 아프다는 것인지 어휘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무릎	knee, lap	황적환(1993)은 영어에서 신체 부위의 명칭이 다양함은 서양에서 발달한 의학이나 미술분야의 인체해부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세다, 단단하다. 크다, 진하다, 똑하다, 강하다	strong	a strong horse(힘이 센 말) a strong stick(단단한 막대기) a strong possibility(큰 가능성) strong coffee(진한 커피) strong whisky(독한 위스키) strong will(강한 의지)
전에 배운, 오래된, 옛날의 등	old	전에 배운 단어(old word), 오래된 집(old house), 옛날 여자친구(old girlfriend),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안경을 끼다, 목걸이를 건다 등	wear	한국문화에서는 의식주 중에서 의(衣)를 중시한 것 같다.
걸리다, 들다	be required	두시간이 걸리다. 눈이 많이 들다.
서너 개, 대여섯 개, 두어 시간, 눈썹만큼, 귀꼬리만한, 짐채만한, 고래등만한	some(?)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는 숫자 관념이 희박한 표현이 많다.

첫째, 민족의 사고방식, 관습, 문화 등이 언어의 특이한 표현구조나 의미를 형성해간다고 할 수 있으며 언어의 기본이라 할 어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농업위주의 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모, 벼, 쌀, 밥’ 등의 어휘가 영어의 rice라는 단어보다 세분하여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어에서 빵의 모양이나 재료에 따라 명칭이 각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에스키모인의 언어에서 눈에 대한 표현이 영어나 한국어 표현보다 더 세분된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는 어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는 ‘의식주’라는 용어에서 ‘의’를 앞세워서 표현하게 했으며 영어의 ‘wear’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하도록 일익을 담당했다.

셋째, 농업위주의 문화,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외에 대가족 제도의 문화,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는 다양한 가족 호칭의 발달과 형제 간에도 순위를 구별하는 어휘의 발달을 가져왔다.

넷째, 영어에서 신체 부위의 명칭이 다양함은 서양에서 발달한 의학이나 미술분야의 인체 해부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황적륜(1993)의 견해 또한 타당성이 있다.

다섯째, 한국어는 형용사가 발달한 어휘라고 한다. 색깔에 대한 다양한 표현 외에도 영어의 strong이나 old를 대신하는 한국어의 어휘 표현에서도 그 예는 두드러진다.

여섯째, 숫자 관념이 회박한 우리 민족은 ‘서너 개, 대여섯 개, 두어 시간, 눈곱만큼, 쥐꼬리만한, 집채만한, 고래등만한’ 등과 같은 두리몽실한 말들로 정확한 수치를 동반하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휘 등을 고려한 한국어 교재 편성이 필요하다.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기초 어휘로 박갑수(1994)는 ①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전통적인 어휘, ②대표적인 문학 예술 작품과 관련된 어휘, ③전통 문화, 제도, 풍습, 민속에 관한 어휘, ④언어 예절과 관련된 표현, ⑤대표적인 관용적 표현, ⑥대표적인 속담, ⑦대표적인 신어와 유행

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법상의 차이의 대표적인 예로 문화적 차이에 의한 피동표현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한국어에서는 동작주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구어체에서는 동작주를 생략한 문장이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훨씬 많다. 즉 영어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거나 비인칭주어를 쓰는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동작주에 해당하는 주어를 보통 생략한다.

우리말에서는 영어의 사역문에 해당하는 문장이 거의 쓰이지 않아 영어에서 엄격히 구별되는 'I shined my shoes.'와 'I had my shoes shined.'가 우리말에서는 다같이 "(나) 구두 닦았다"가 된다. 영어에서는 어떤 행위를 문장의 주어가 스스로 했는지 남을 시켜서 했는지 분명히 밝히게 되어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그렇지 않아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고 와서도 "나 오늘 파마/이발 했다"라고 하고 치과에 가면 서도 "나 이 빠러 간다"라고 하고 남을 시켜 집을 수리하고도 "지난 봄에 집수리 하느라고 원고 한 장 못 썼어"라고 한다.<sup>3)</sup> 영어 사역문의 유형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영어에서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상태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통례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가능한 주체를 생략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라는 집단 의식보다 개체를 중시하는 미국문화와 우리라는 집단 의식이 중시되는 한국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의 수동문이나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피동문<sup>4)</sup>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피동 표현이 영어에 비해 일반적 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영어에 비해 피동 표현이 발달하지

3) 황적륜(1993), 언어와 문화 :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師大論叢, 第 46輯,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 72.

4) 영어의 수동문, 수동태 구문에 대응하는 문을 한국어에서는 피동문, 피동구문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못한 이유도 이러한 동작주 생략의 문장이 일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의 경우 동사의 수동형은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구분되며, 규칙형은 단어형성 과정 안에 있는 형태 규칙에 의해 형성되고, 불규칙형은 해당하는 기본 동사의 어휘 항목 속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와 같은 방법으로 동사의 형태를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한국어의 피동 형태는 동사 어간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접미사가 붙어서 되는 것도 있고, ‘아/어 지다’가 붙어서 되는 것도 있다. 또한 ‘당하다’와 같은 것은 대응하는 기본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밝혀지다’와 같이 사동에 ‘아/어 지다’가 붙는 경우도 있으나, 규칙형을 정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피동 형태가 없고, 모든 피동형에 대응하는 사동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영숙(1990)은 한국어에 동사의 피동형이 독립된 어휘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법상의 대표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피동문, 피동 구문과 영어의 수동문, 수동태 구문에 대해 한 예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에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도 기존의 방식대로 문법현상 위주의 설명을 뛰어넘어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예와 같이 피동표현과 영어의 수동태의 차이를 제시하는 방식의 설명 방식을 택하는 것이 문화적 특성을 알고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Ⅲ.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교재 편성

#### 1. 교재 편성시 고려 사항

##### 1. 1. 교재 외적인 요인

교재 편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교재 외적인 요인으로는 학습자 변인과 교사 변인을 들 수 있다.

학습자가 외국인인지 교포인지, 교포 2세인지, 외국인일 경우는 그 학습자의 모국어권이 영어권에 속하는지 동양어권에 속하는지 구분해서 문법 설명이나 발음상의 차이, 한자어휘 설명 등이 교재 편성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일상회화 차원인지 전문 분야로 한국학을 하려는 차원인지에 따라 문학이나 작문 교육의 여부도 고려하여 단계별 교재 구성의 요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성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교재 편성에서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보이는 규칙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주는 교재가 1차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기본 문법을 배우는 것은 언어습득의 단기적인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어린이일수록 언어의 습득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연습일 것이다. 특히 현실적인 경험과, 문맥적인 경험을 동반한 연습이 필요하다. 문법 규칙만을 암기하고 전형적인 문장 몇 개의 암기로는 암기한 문장은 유창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창조적인 언어 구사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이 교재 집필의 변수로 작용하듯 교재를 운용하는 교사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다.

## 1. 2. 교재 내적인 요인

다음으로 교재 내적인 요인을 살펴보겠다.

첫째, 교재 편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사용 빈도가 높고 필수적인 어휘를 선정하여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어휘와 문학작품이나 신문 등의 글에서 사용하는 문어체 어휘의 차이를 고려하되 구어체 중심의 기초어휘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적인 차이로 상위어와 하위어의 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고 어휘의 내포와 외연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어휘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문법을 설명할 때는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문법 용례를 함께 제

시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언어 문화적 차이도 고려하여 문법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영미권의 사람들은 시제에 관한 문법을 쉽게 이해하지만 그들이 존대법에 대한 문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는 한국어의 어순, 어미나 조사, 존대법에 대한 문법은 쉽게 이해하지만 시제에 대한 문법을 어려워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일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피동구문에 대응하는 영어의 수동태 구문을 함께 제시하여 문법적인 이해를 돕고 완전한 대응이 아님을 보여주는 설명을 덧붙인다. 즉, 영어에서는 수동태 구문이 일반적이지만 동작주 생략의 피동 구문이 일반적인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덧붙인다.

셋째, 문화적인 면을 설명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인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요”나 “또 봅시다”라는 말이 문화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뒷사람에게는 왜 써서는 안 되는지 몰라 잘못 사용하는 예가 많다.

문화적인 면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용례는 속담을 포함한 관용어의 제시이다. 영어 속담의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부화하기 전에 닭을 헤아리지 말아라)’와 우리말 속담의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의미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예이다. 우리 민족은 음식을 먹기 전에 김치국을 마신 후에 다른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표현은 다른 음식은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처럼 일이 되기도 전에 미리 기대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관용어가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영어 속담에 있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요리사가 많으면 스프를 망친다)’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도 의미는 같지만 문화의 차이로 표현에 쓰인 어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인 특성에 따른 표현상의 차이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은 유익한 교재 편성 방식이 될 것이다.

넷째, 비디오나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영상매체인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활용하여 언어 사용의 현장성을 경험하게

하면 언어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어린이 만화영화인 디즈니 만화영화 비디오가 좋은 교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쉬운 일상 표현이 만화영화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만화 영화 비디오를 이용한 보조 자료의 제작과 활용이 필요하다. 만화 영화가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다면 드라마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뉴스는 빠른 속도로 말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숙달된 중급 수준이나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유용하다.

## 2. 현행 한국어 교재 분석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편 한국어 I, II, III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국어I은 일상 생활 중심의 회화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상황에서 막힘 없이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장면 설정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상황, 장면 중심의 회화로 구성되므로 문법 사항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제외하고 있다. 한국어I에 소개된 문법 내용은 표면에 드러 나지는 않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 경어법, 격조사, 부정법, 피동, 사동, 시제 등이다.

한국어II는 다소 높은 수준의 회화와 짙막한 읽을거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읽을거리도 본문의 회화 수준의 연장에 불과하다. 읽을거리의 수준을 더 높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읽을거리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법은 한국어I보다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접속, 관계화, 보문화, 보조용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어I은 대화가 장면 중심적인 데 반하여 한국어II의 대화는 주제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한자의 도입은 없다.

한국어III은 더 수준 높은 회화와 다소 길고 복잡한 내용을 담으려 한 것 같다. 그러나 친편일률적으로 농담 조의 어투이다.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편성인 것 같은데 이러한 농담

조의 어투가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 제시된 회화투를 보기 위해 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3과 고사성어와 속담

직원 : 어서 오세요. 무얼 찾으세요?

손님 : 예쁜 새모이통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새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직원 : 새모이통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나오세요. 각종 새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원하시는 새모이통도 그 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님 : 좋습니다. 그거 일석이조로군요.

직원 : 음-. 저희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재에 실린 이 대화에서 단원명을 고려할 때 고사성어인 ‘일석이조’를 가르치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인데 “저희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구절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이러한 대화상황에서 고사성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학습할 지도 모른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말이라는 교사의 설명으로 학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 의심스럽다. 사실 한국어에서 고사성어와 속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적절한 고사성어와 속담의 구사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3. 교재 편성의 실제

본문의 내용은 우리 언어 체계를 고려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

한국어는 주어 중심의 언어가 아니다. 주어가 생략되어도 문장이 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영어처럼 주어의 존재와 지정을 뒷받침해 주는 ‘-이다’ 동사를 먼저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학생이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되는 문형부터 시작하면 무난할 것이다. 즉,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동사

중심의 언어이므로 동사류부터 가르쳐서, 술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어 중심의 언어라면 '주어 + 동사'의 문형을 가르치고 동사의 불규칙을 다루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한국어의 경우는 완전한 문형 습득 이전에 우선 의사소통부터 할 수 있게 동작동사의 제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단계의 본문 제시에 동사 중심의 제시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서법이다. '-ㅂ니다'를 먼저 제시할 것인지 '-어/아요'체를 제시할 것인지를 문제이다. 한국어I에서는 '-어/아요'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난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어법에서 '-ㅂ니다'보다 '-어/아요'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읽을 거리에서는 민간전래 동화나 고전 소설, 판소리 등을 쉬운말로 운문하여 제시하거나 영어번역으로 읽을거리를 제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주는 것이 좋겠고 한국의 전통 사상과 외국인의 사상을 비교 대조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로빈 훗과 홍길동전,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이야기를 대조하여 언어상의 차이로 인한 표현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서양인의 사고 방식과 한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실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구비 전승된 문학작품을 다시 쓴다거나 외국 소설을 한국 현실에 맞춰 번안한 작품을 실을 수도 있다.

로빈 훗과 홍길동전 이야기를 대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영어로 된 구문을 한국어로 직역한 것이다.

로빈 훗은 노팅함에 있는 셔우드 숲에 사는 전설적인 영웅이다. 로빈은 1160년에 태어났다. 그 당시에는 숲에서 부자들을 약탈하는 도둑들이 많았다. 로빈 훗은 부자들을 약탈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그는 무법자로 살았는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도덕심은 있었다. 그는 부정의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는 훌륭한 스포츠맨, 용감한 전사였고 활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고 숲속에서 아내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임금님의 사슴을 죽여 양식으로 사용했고 여러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게임을 즐겼다. 그는 숲을 통과하는 부자들을 초대한 후에 그들을 체포하여 약탈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부하 중 한 사람이 그들의 가방에 돈이 얼마나 있나를 확인했다. 식사가 끝난 후 로빈은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물론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생략...

다음은 홍길동전의 일부인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실을 것을 감안하여 쉽게 운문한 글이다.

조선시대에 판서 벼슬을 지낸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홍판서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 아들 인형은 큰 부인 유씨에게서 태어났고 둘째 아들 길동은 하녀 춘삼의 몸에서 태어났다. ...중략...

이튿날 길동은 과거 공부를 하러 온 판서 아들이라고 하면서 해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주지를 불러 말했다. “내일 서울 집에서 쌀 스무석을 보내올 테니 잘 차려주세요.”

다음날 길동은 부하들을 시켜 해인사로 쌀 스무석을 나르게 했다. 서울에서 쌀 스무석까지 가져오고 자기 절에서 글 공부를 하겠다며 주지는 흐뭇하여 곧 잔치준비를 시켰다. 부하들과 잔치상을 받은 길동은 미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돌을 몰래 밥에 섞었다. “아앗, 아니 누가 밥에다 돌을 넣었느냐” 종들은 어쩔 줄 몰라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길동은 더욱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중을 묶게 했다. 그리고 해인사 창고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할 때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글의 머리에서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었다고 하여 ‘그, 그녀’ 등의 대명사로 인물의 이름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위에 제시한 홍길동전에서도 ‘그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길동이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영어를 직역한 글과 본래 한국어로 된 글을 제시한 후에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보고 어떤 것이 더욱더 한국어적인 표현인지 학습자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성해 보도록 한다. 영어를 직역한 글과

본래 한국어로 된 글, 유사점이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면 언어상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표현상의 차이를 학습자가 쉽게 배울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의 전통 사상과 외국인의 사상을 비교 대조한 글을 예<sup>5)</sup>로 제시해 보겠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꿀벌을 치는 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 도둑이 들어 벌통 속의 꿀을 훔쳐갔다. 돌아온 꿀벌들이 꿀이 없어진 것을 알고 몹시 슬퍼하고 있는 주인에게 달려들어 주인을 마구 쓰아댔다. "꿀벌 훔쳐간 도둑은 못쓰고 저희들을 걱정하고 있는 나를 쏘다니!"하고 주인은 한숨 쉬었다. 이처럼 유럽의 꿀벌들은 의리가 없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나서인지 한국의 토종 꿀벌은 의리가 있고 도덕적이다.

밀양사람으로 꿀벌을 기르는 자가 있었다. 집안에 슬픈 일이 있었던 어느 날 이 주인이 벌통 속에 들어가보니 여왕벌 곁에 못벌들이 한마리도 남김없이 죽어 있었다. 주인이 이를 보고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꿀벌이 묘사되어 있다.

위의 글을 읽고 전래 동화에 제시된 동·서양의 꿀벌의 묘사를 비교하여 보게 한다. 또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찬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여 토론의 거리로 삼게 한다.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IV. 결 론

급진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학, 동양학을 전공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사례

---

5) 예문은 필자가 월간 조선에서 뽑아 학습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활용할 한국어 교재의 예문으로 실을 경우를 고려하여 윤향한 글이다.



가 많아지고 있고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하여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재 편성의 고려사항과 교재 편성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하리라는 취지 아래 본고의 작업을 하였다.

한 집단이 갖는 넓은 의미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언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외국어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문화의 이해가 반드시 교육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려면 언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3장 1절에서는 교재 편성시 고려 사항을 이론상으로 살펴보았다.

교재 외적인 조건으로는 학습자 변인과 교사 변인을 고려해야 하고 교재 내적인 요인으로는 어휘 선정 시에 구어체 중심의 기초어휘를 선정해야 하고 문법 설명 시는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문법 용례를 함께 제시하고,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언어 사용의 양상을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제시해야 한다. 비디오나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 자료의 제시도 필요하다.

3장 2절에서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I, II, III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재 편성시 본문의 내용은 우리 언어 체계를 고려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

한국어는 주어 중심의 언어가 아니다. 주어가 생략되어도 문장이 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영어처럼 주어의 존재와 지정을 뒷받침해 주는 '-이다' 동사를 먼저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학생이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되는 문형부터 시작하면 무난할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완전한 문형 습득 이전에 우선 의사소통부터 할 수 있게 동작동사의 제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단계의 본문 제시에 동사 중심의 제시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서법이다. '-ㅁ니다'를 먼저 제시할 것인지 '-어/아요'체를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한국어I에서는 '-어/아요'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난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어법에서 '-ㅁ니다'보다 '-어/아요'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읽을 거리에서는 민간전래 동화나 고전 소설, 판소리 등을 쉬운말로 운문하여 제시하거나 영어 번역으로 읽을거리를 제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주는 것이 좋겠고 한국의 전통 사상과 외국인의 사상을 비교 대조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로빈훗과 홍길동전,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이야기를 대조하여 서양인의 사고 방식과 한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실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구비 전승된 문학작품을 다시 쓴다거나 외국 소설을 한국 현실에 맞춰 변안한 작품을 실을 수도 있다.

< 참 고 문 헌 >

- 고영근(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言語教育 제 6권 1호,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김영기(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이론적 배경, 효과적 교수법과 교재 개발, 교육한글 4, 한글학회.
- 박갑수(1994), 이중언어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146, 교육부.
- 박명석(1980), 언어와 문화, 외국어교육 논문집, 한국외국어대학 외국어연수원.
- 백봉자(1988), 기초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무엇부터 다루는 것이 좋은가? -동사류어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글 제 201, 202호, 한글학회.
- 백봉자(1991),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교육한글 4, 한글학회.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편(1992), 한국어 KOREAN I, 대한민국문화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편(1992), 한국어 KOREAN II, 대한민국문화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편(1992), 한국어 KOREAN III, 대한민국문화부.
- 이계순(1980),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이론과 그 교육방향, 외국어교육 논문집, 한국외국어대학 외국어연수원.
- 이영숙(1990), 수동문 구문의 대조분석, 언어연구 제 9집, 경희대학교.
- 이정노(199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편찬에 있어서 고려할 몇 가지 문제, 교육한글 4, 한글학회.
- John & Soars(1994), HEADWAY, pre-intermediate, Oxford university press.